기획특집

제주와 중국의 경제교류 협력강화 방안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김 형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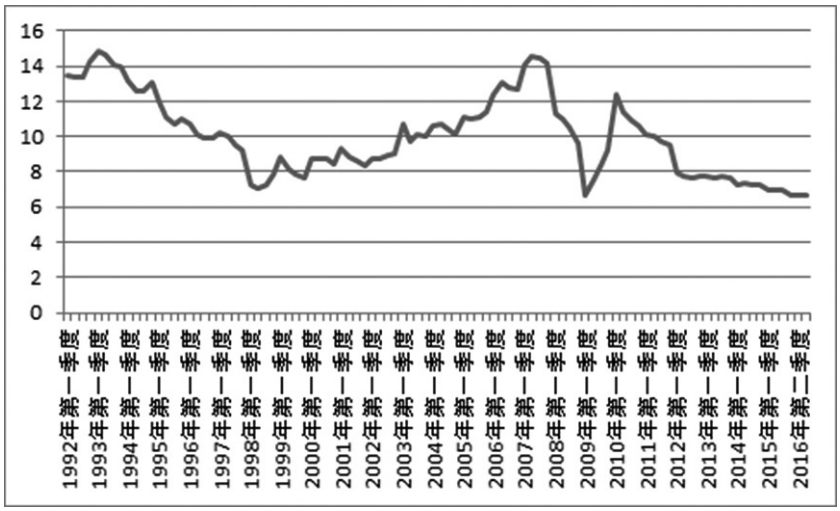
1. 서론 : 신창타이(新常态)

가. 중속성장시대(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압축 성장을 이어오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유지하였던 것이 최근에 그 성장세가 꺽인 것이다. 개혁개방을 통해 대외개방을 시작한 80~90년대 당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거점으로의 이점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 선진기술 유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정책 그리고 세계 최대 인구와 광활한 영토는 글로벌 기업에게 전세계에서 남은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인식되며 세계 투자의 블랙홀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될 만큼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것이 밑바탕 되어 중국은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며 2010년에는 G2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경제분석기관들은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G1이 될 것이라고 앞다퉈 예상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최강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몇 해 전인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8%대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고성장의 비정상이 중속성장의 정상의 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态)'[1]의 진입을 맞이하고 있다.

1)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으로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2014년 5월 중국의 시진핑

〈그림 1〉 중국 GDP 성장률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현재 중국의 신창타이는 경제성장속도의 터닝포인트임과 동시에 경제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 나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성장 속도의 터닝포인트라는 의미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지난 30여년 동안의 고속성장에서 향후 10년간 중속성장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개방 이후 2012년 이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 8% 이하로 하락한 적은 몇 번 있었으나 모두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인한 한시적인 경기의 부침으로 여겼고 실제로 위기를 바로 극복하고 하락된 성장세가 바로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위 〈그림 1〉과 같이 GDP 분기성장률을 살펴보면 8%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8~1999년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컷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면 모두 8%를 상회하는 성장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1/4분기부터 2015년 3/4분기까지 중국 GDP 성장률은 8%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것은 이전의 일시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아닌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둔화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신창타이는 예전에 비해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일반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음.

낮은 새로운 성장률을 새로운 기준으로 이해하고 경제 전반이 순응하는 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

2. 본론

가.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경제 변화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경제는 기존처럼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수출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 등으로 통한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구조 고도화 등으로 통한 성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고속성장 시대(~2012)	종속성장 시대(2012~)
경제성장률	연평균 10% 이상	8% 이하 유지
성장동력	수출, 투자	내수
주요산업	전자, 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다양한 서비스업 비중 제고
수출의 성장기여도	고	中低
무역방식	가공무역 비중 大	일반무역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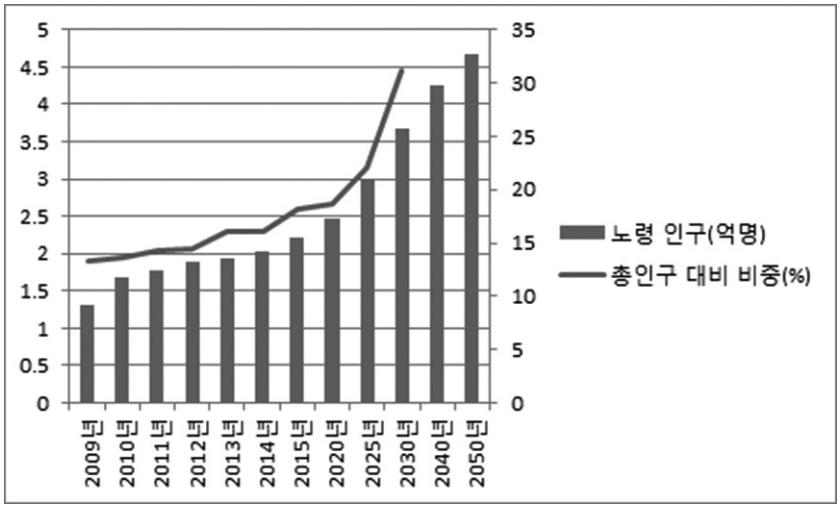
출처 :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과거 투자와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가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던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최근 몇 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비의 기여도가 확대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감소하며 소비의 기여도가 50%를 상회하고 있다.[2)]

2) 정지현, 김부용(2015),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금은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정부가 시행했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즉 4조 위안의 재정 투입과 은행대출의 대폭 증가가 초래한 제조업 부문의 과잉 생산력, 지방정부 부채의 급증, 지방도시의 부동산 거품 등 부작용을 해소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중국 고령화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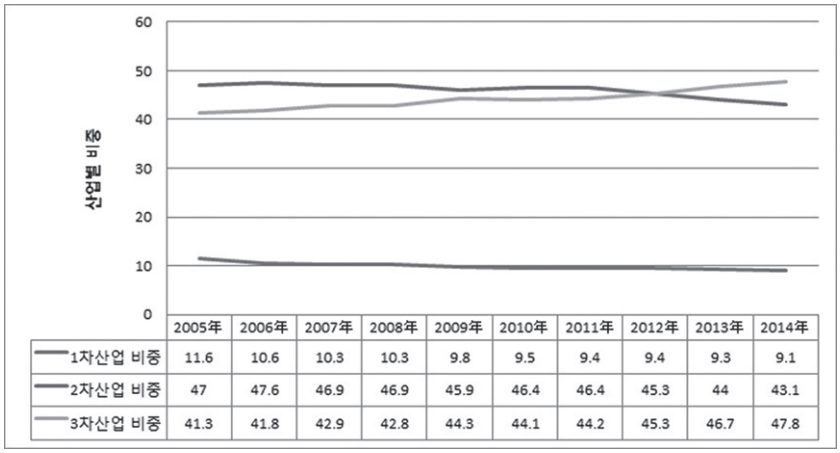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3]로 진입했으며, 2014년에는 65세 이상 이구의 비중이 10%에 달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사회보장비용을 증가시켜 미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제구조의 산업 비중을 농업위주에서 3차산업인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을 택하고 있다.따라서 중국당국은 정책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미 2013년에 중국의 3차산업 비중이 2차산업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3차산업 비중이 47.8%로 2차산업

3)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함

비중을 4.7%p 상회하며 확대 추세에 있다.

〈그림 3〉 중국 산업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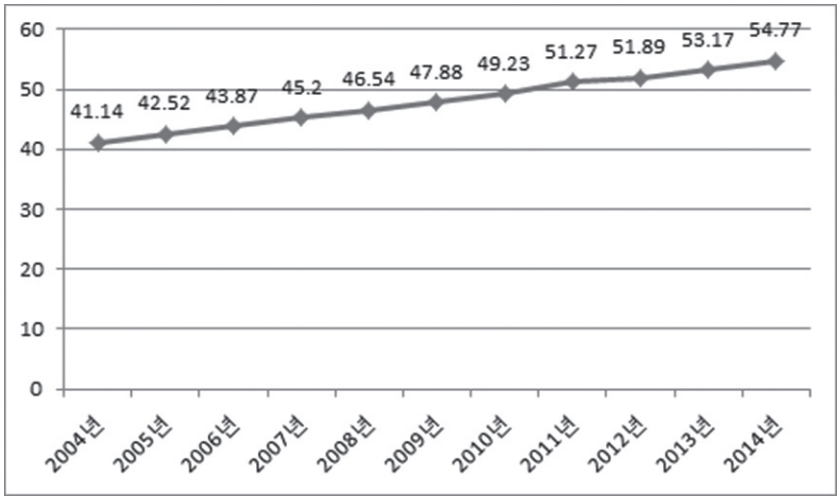


	2005年	2006年	2007年	2008年	2009年	2010年	2011年	2012年	2013年	2014年
1차산업 비중	11.6	10.6	10.3	10.3	9.8	9.5	9.4	9.4	9.3	9.1
2차산업 비중	47	47.6	46.9	46.9	45.9	46.4	46.4	45.3	44	43.1
3차산업 비중	41.3	41.8	42.9	42.8	44.3	44.1	44.2	45.3	46.7	47.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화이다. 2000년에 36.2% 수준이던 중국의 도시화율이 2014년에는 54.8%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중국 도시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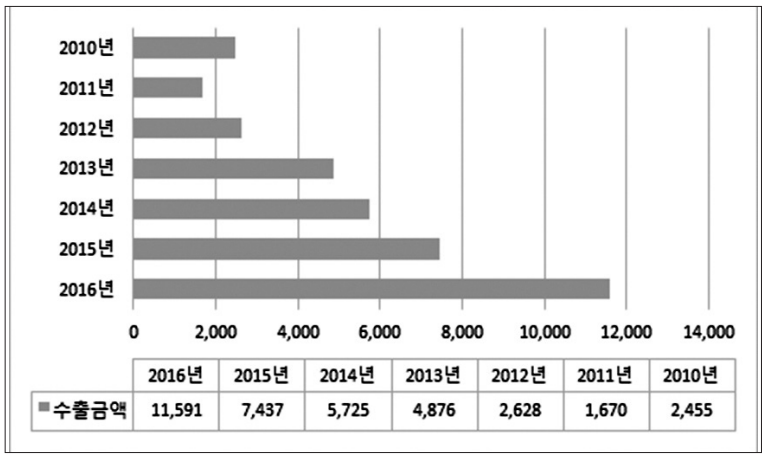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따라서 중국정부는 당분간 내수위주의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제주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방안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나.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현황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은 2016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36%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액 기준 31.7%, 중량기준 19.3%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줄어들어 수출품목의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 현황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수출금액	11,591	7,437	5,725	4,876	2,628	1,670	2,455

자료 : 제주지역 대중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수출역량강화 방안, 2016,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실적은 기존과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품목,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은 전년대비 400%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제주수출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모노리식 직접회로(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에 해당)의 경우 홍콩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세라믹 제품, 광학기기의 경우 2016년 수출실적이 높은 반면 농수산품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등 품목별로 명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전통적인 수출 강세 품목인 제주 특산품이 선전하였으나 하반기에 그 기조를 이어가지 못함으로써 2016년 중국에 대한 특산품 수출전망은 다소 저조하지만 공산품의 선전으로 전체 수출 실적은 전년에 비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4)]

〈표 2〉 제주도의 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비교

(단위: 달러)

HS2단위	품명	2013	2014	2015	2016(8월)
	총계	4,876,027	5,725,133	7,436,650	11,591,257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46,360	254,259	1,289,157	4,757,268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7,920	124,076	1,279,665	4,170,791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90,882	834,184	880,644	678,603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409,675	1,733,032	953,554	555,298
22	음료, 알코올, 식초	469,408	564,723	586,281	260,564
69	세라믹 제품	-	0	24	223,879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등	386	37,236	10	215,022
18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66,608	130,229	287,620	168,171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134,966	113,433	349,323	122,194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	23,983	103,657	81,113
20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315,472	87,792	126,826	43,834
12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317,809	241,980	44,547	15,100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00,213	652,894	559,337	8,356

자료 : 제주지역 대중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수출역량강화 방안, 2016, 제주발전연구원

한편, 상위 12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 이상으로 편중화된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2016년에는 상위 2개 품목이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은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 Risk management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4) 제주지역 대중수출기업 실태조사 및 수출역량강화 방안, 2016, 제주발전연구원

3. 결론

가. 제주와 중국의 경제교류 협력 방안(제언)

(1) 분업 협력 모델 구축

최근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종재 분야의 외국기업과 중국 로컬기업간 상호 경쟁관계가 커지고 있는 반면 중간재 분야에서는 아직도 상호 보완성이 큰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수출 상품과 중국 로컬기업간 직접적인 경쟁은 지양하고 호혜적 분업구조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윈-윈이 가능한 협력모델은 단순조립과 가공단계에 그치는 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제품의 연구개발, 디자인, 기획, 공동 브랜드 런칭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협력 관계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 제주도의 강점이 있는 청정에너지 자원 활용 기술, 신에너지 개발 및 제조, 환경보호 기술 등 미래의 시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2) 서비스 분야 협력 강화

상품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협력 구조의 틀을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적, 인적교류의 확대에 부합한 지원 분야의 협력으로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적 교류의 확대에 따른 항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가 지금보다 더욱 절실하다. 상품교류와 투자 확대에 걸맞는 물류, 유통, 법률, 회계, 금융 등 관련 서비스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협력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3) 차이나머니 투자 확대

중국기업의 제주도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간접투자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차이나머니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차이나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니 도내 경기 활성화 및 중국 유커 유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시장개방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투자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차이나머니로 인해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反차이나머니 정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4) 일대일로 프로젝트 기회

활용중국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협력의 중요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은 '新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고,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경유하는 해상루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해양실크로드 건설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협력을 통한 교통, 통신망을 기반으로 물류, 신산업분야의 협력과 인적교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5) 중국 도시화에 따른 프리미엄 제주 브랜드 구축

중국 각 지역의 도시화율이 높아짐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생활수준 제고, 친환경 제품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제주도산 친환경적 먹거리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는 '제주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로컬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한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주 상품의 대중국의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6) 온라인 제주 홍보 강화

2006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5년 6월 현재 48.8%, 인터넷 이용자 수는 6억 6,770만 명에 달한다. 향후 15~20년 안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0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이 되면 중국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웨이보(微波, Weibo)[5], 위챗(威信, Wechat)[6] 등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제주도 관광 컨텐츠 및 제주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제주발전포럼

5) 중국판 마이크로 블로그로 140자 이내 사진과 글을 올려 자신의 근황 또는 관심사들을 블특정다수와 공유하는 인터넷 플랫폼

6)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단순한 인스턴트 메시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카카오스토리에 해당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올려 친구로 추가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 플랫폼